

가계대출 연대보증제 없앤다

은행연합회 상반기 완전 폐지 추진

기업대출 대주주 연대보증도 개선

은행들이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은행 내규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상반기 중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7일 작업반(TF)을 구성해 14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지난 2월부터 담당 부서장들의 회의를 통해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시기와 은행내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대보증제도를 없앨 경우 신

용이 낮은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기업 대출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는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도를 정밀 평가해 대출을 해주기 보다는 대출금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영업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은행이 작년 8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11월부터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도 전면 감면해주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작업반에 참여하는 시중은행은 6개이지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어 일부 저신용자를 위한 연대보증 대출상품을 제외하고 개인 간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라며 "실무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소득 자영업자 1조원 세금 추징

국세청, 2년여 동안 의사·변호사 등 탈루혐의 조사

국세청이 지난 2년여 동안 의사·변호사·유용주점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차례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시기별 추징세액은 1차(2005년 12월) 1천94억원, 2차(2006년 3월) 1천65억원, 3차(2006년 8월) 2천454억원, 4차(2006년 11월) 2천96억원, 5차(2007년 2월) 2천147억원, 6차(2007년 6월) 1천58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에도 변호사·건축사, 고급·대형 유흥업소, 고가스포츠용품 업체,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탈루혐의가 큰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7차 기획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있을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해 개선된 분야(업종)는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기업진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방향은 검수와 기간을 단축하지만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8천건 정도 실시해 지난해보다 1천건 줄이기로 했고 조사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단축하는 한편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장을 방문해 출장조사도 축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정위 '납품가 연동제' 고민

기업 계약내용 공권력 개입 부적절 등 부처 이견 따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납품가 연동제'의 시행방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납품가 연동제의 시행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관계 부처들의 의견이 엇갈려 하도급법 관할부처인 공정위가 고민하고 있다.

에 원자재 가격변동 반영 의무화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지식경제부가 연동제의 제도화는 추후 검토하고 우선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산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동제의 의무화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애초 중기청과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유형'에 '원자재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납품거래는 계약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자유 계약이나 사적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방안이 안착에 부딪혔다. 개별기업간 계약내용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

이에 대해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경제 체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의무화하는 수위는 다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3년간 원자재값 큰 폭 올랐어도 中企 33%, 납품가 반영 못했다

중기중앙회 530개사 실태 조사

최근 3년간 원자재 값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529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 1월과 비교해 올해 1월에 원자재 가격은 32.5%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9.2% 밖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33.1%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반영됐다'는 기업은 63.6%였다. 모(母)기업이 단가를 인하하는 주된 요인에 대해(이하 복수응답) 중소기업은 '완제품의 치열한 가격적인 경쟁으로 부품가격 인하나 불가피하기 때문' (72.0%) 혹은 '모기업이 임금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 비용을 전가해서' (61.0%)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로서수로 담합 적발

17개 은행 43억 과징금

국내 은행들이 수출환어를 매입수수로 등에 이어 지로서수로 담합해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로서수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1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제일·씨티·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중소기업·산업·대구·광주·제주·전북·경남·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연합뉴스



선글라스 패션쇼
광주신세계백화점은 6일 1층 행사장에서 2008년 선글라스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선글라스 패션쇼를 열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신세계 제공)

새 아파트 고급화·대형화 추세

기존 아파트보다 3배 비싸

국내 아파트의 고급화·대형화 추세로 인해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등 지방 도시의 경우 입주 3년 미만의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2~3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고분양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사베'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입주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3천95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이전의 아파트(2억6천200만원)에 비해 30.5% (7천936만원) 높은 것으로, 새 아파트의 고급화·대형화 추세로 인해 최근 3년새 분양가가 크게 뛰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집값 격차는 광주·전남 등 지방 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새 아파트의 가격은 2억2천

870만원으로, 기존 아파트(1억1천135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전남은 새 아파트(1억5천570만원)가 기존 아파트(5천973만원)에 비해 2.61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돼 16개 시도 가운데 집값 격차가 가장 컸다. 광주도 새 집과 기존 집의 가격차이가 2.48배에 달하면서 새 아파트의 고급화·대형화 현상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새 집과 기존 집의 가격 차이가 2.58배에 달했으며, ▲강원(2.55배) ▲충북(2.32배) ▲부산(2.11배) ▲경북(2.11배) 등의 순이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경제연구원 "올 성장률 4.5% 하향 조정"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최근 대외여건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수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망치 5.1%에 비해서는 0.6%포인트가 낮아졌다. 한편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 세계경기 효과 등 일부 상승요인도 있으나 세계경기 둔화, 국제유

가 및 원자재 가격급등 등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더 우세하다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완화되나,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4.5%가 올라 2001년(4.1%)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4%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씨제이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식자재영업 경력사원(호남지역)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4/07	02-2149-6361
(주)화인코리아	식품연구개발/사육/생산/경리/영업(서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8	061-330-4523
에스디엘*	정규직 영업 및 홍보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09	062-374-0650
(주)허니리건설	건축캐드기능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09	062-574-6555
G&F 인터네셔널	일반 경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4/09	010-9671-6669
광주아우디전시장	광주 아우디전시장 리셉션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4/10	011-299-7000
(주)신세원	총무분야수행비서	고졸/경력1년	2000~2200	04/10	062-372-3588
우신	정규직 타이머 금형 제작 설계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16-610-0469
(주)신광씨링	기업체 납품영업 경력사원	초대졸/경력4년	2400~2600	04/11	018-619-2793
동부회계 광주 고객센터시스템	(광주)TM센터(Open)봉사직원 TM사원(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1	062-220-8500
신안중공업*	각 분야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1	062-717-5523
아름다운사람들이용학원	메이크업/네일/피부/헤어 경력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4	062-233-6668
삼광정밀 김해공장	1000톤 프레스 라인 직장 내직 반장	고졸/경력년	회사내규	04/15	016-311-270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영업실적 큰 폭 호전 불구 10대그룹 고용창출 없었다

작년 고용증가율 0.26% 그쳐

지난해 10대 그룹들은 영업실적이 대폭 호전됐는데도 고용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10대 그룹 계열 72개 상장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 모두 포함)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계열사의 총 직원 수는 43만3천9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말의 43만2천875명에 비해 단지 1천108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고용증가율이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0.26%에 불과했다. 직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현대차그룹으로 지난해 말 현재 10만2천923명으로 전년도의 10만1천58명에 비해 1천365명이 늘어났으나 증가율은 1.85%에 그쳤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만1천930명으로 1천370명이 증가, 6.66%가 늘어나 증가율로는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SK그룹(838명, 5.01% ↑), 롯데그룹(171명, 0.82% ↑), 한화그룹(116명, 2.34% ↑) 등 순으로 10대 그룹중 5개 그룹만 직원 수가 증가했다. LG그룹은 6만4천829명으로 전년도의 6만7천496명에 비해 2천667명(3.95%)이 감소했으며 10대그룹 가운데 가장 직원 수가 많은 삼성그룹도 14만4천41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85명이 줄었다. GS그룹(121명 ↓), 현대중공업(44명 ↓), 한진그룹(35명 ↓) 등도 직원 수가 감소했다. /연합뉴스

정유사 공급가 검증 충실해진다

월단위 주단위 변경...주유소 가격 공개 유도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가격동향에 대한 검증이 지금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 단위로 잠정가격을 공개한 뒤 월 단위로 확정치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양쪽의 비교를 통해 허수를 발견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급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제도를 현행 월 단위로 바꾸고 주별 가격은 잠정치를 공개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말에는 지금까지 실제 판매량과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확정치를 별도 공개하기로 했다. 두 가격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잠정 발표치의 정확성 여부를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유사들의 가격공개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유사들의 가격 주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유소 업계의 주장이 일정 정도 수용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뤄질 주유소 실제 판매가의 인터넷 공개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일부 주유소들이 처음부터 가격공개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을 행사 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농협광주본부 고객센터 사업설명회



농협고객지원부(부장 문경래)와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영업점 현장의 애로사항과 고객지원센터 업무추진에 이해하는 사업설명회를 최근 농협광주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종기 고객지원부 광주센터장은 "지역본부 직원들이 사이 비집 역할을 수행하는 고객센터의 기능과 애로를 충분히 인식, 고객센터를 널리 활용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기기자 jitlee@kwangju.co.kr

로도복권 (제27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7 16 31 36 37 38	11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914,205,320	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080,412	27
3 5개 숫자 일치	1,466,150	1,088
4 4개 숫자 일치	57,566	55,421
5 3개 숫자 일치	5,000	922,712

팝콘복권 (제102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조 267364
2	1억	3조 649888
3	1천만	4조 225752
4	1백만	각조 54503
5	50만	각조 7756
		각조 91
6	2천	각조 12
		각조 85
		각조 4
7	1천	각조 6
		각조 8